

## 향기나는 아버지

호태규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4학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요즈음 '향기나는 아버지'로 멋지게 변신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참 싫었다.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늘 내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담배를 피우셨다. 베란다에서 혹은 서재에서 겨울이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시곤 기침을 자주 하셨다. 그럴때면 어머니께서도

"또 기침이에요. 어쩌면 좋아." 하시곤 말았다.

참 이상하다. 아버지는 나쁜 일, 해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는 피우니까 말이다.

어릴 적 기억에 이모를 만나러 나갔다가 전철역에서 금연홍보비디오를 켜 차를 보았다. 실험용 쥐가 담배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쓰러지는데 아주 무서웠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담배 나빠요. 아빠, 쥐가 쓰러졌다구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의 담배 피우기는 말리지 않으시고

"태규야, 다른 아빠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지만 태규 아빠는 담배만 조금 피우시니까 괜찮아." 하셨다.

신문, 방송 등에서도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를 알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담배때문에 병에 걸린 코미디언 이주일씨, 야구해설가 하일성 아저씨들이 나와서 '금연'을 권하고 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잊지않고 계속 '금연'을 권하고 다녔다. 2학년 때는 선생님께서도 자주 "담배 피우지 마세요. 공기도 더러워지고 몸에도 나쁘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다니다가, 들으시던 선생님께서 너무 귀찮으셨는지 어머니께 말씀하셔서, 어머니께서는 내게

"태규야, 어른들 일에 너무 참견하는 건 옳지 않아. 선생님께서도 담배 조금 피우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이젠 그만해라." 하셨다. 옳은 일이지만 참아야 하다니 정말 속이 상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 그 가족은 간접 피해자라고 들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냄새가 나고 오염된 공기를 가족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몇 년을 버티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번엔 동생 태훈이까지 함세해서

"나쁘다는 걸 알면서, 아빠 바보."

"우리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는 나쁜 짓 계속해요?"하는 편잔에 마음이 움직이셨다.

"아빠 담배 줄이고 있어. 고맙다."

"아버지, 담배는 차츰 줄이는 것보다 한 번에 끊으셔야 한데요."

나는 3학년 때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까지 하며 아버지의 금연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 고맙다. 아빠가 해볼게."

그리고 지난 2월 아버지는


"이제 담배 안 피울거다." 말씀하시곤 벌써 석 달째.

처음엔 껌을 자주 씹으시더니 이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눈살을 찌푸리신다. 지나간 사람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실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젠 정말 담배 냄새가 역겹고 지독하게 느껴진다.

우리 아버지에게선 향기가 난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멋진 행동에서 향기가 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념일을 챙긴다고 해서 나도 5월 17일엔 '아버지의 금연 100일 성공'을 기념하기로 마음먹었다. 보보 100번에 우리 가족이 드리는 '금연 100일 성공 표창장'은 어떨까?

앞으로도 1년후 내년 2월엔 '금연 1년 표창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향기나는 아버지 파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 연꽃피기 금상 수상 작품

우리 아버지는 매일 식사를 하시고 나면 항상 소리없이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셔서 금방 입에 담배를 물고는 아주 신나게 죽음의 연기를 아주 맛있게 즐겁게 피십니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피곤하실텐데 하루에도 몇번씩 밖에 나갔다 오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자주 담배 때문에 다툼을 하시는 것을 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께서 큰소리로

“어허 시끄러워.” 하시면 입을 꼭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날 봄에 앞 베란다에 이웃집에서 사용하시던 화분대를 가지고 오시더니 꽃집에서 소분과 분수대로 작은 공원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어차피 피우는 것 편안하게 피우세요.” 하시며 탁자와 의자, 재떨이, 카세트 등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아빠가 담배 피우실 때는 노래도 틀어 드리고 하시며 베란다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채송화, 과꽃, 무의 싹트기를 실험하기 위해 긴 화분에 심어 놓았습니다. 싹터서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보시고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담배를 피시는 장소가 확 바뀌어 작은 공원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엄마가 갖다 주시는 차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니 너무 좋으신지 베란다에 더 자주 나가시기 시작 하였습니다. 엄마는 또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베란다에 가실 때마다 담배를 피우시는게 아니고 화분에 흙이 마르지 않았는가 나뭇잎이 시들지는 않는지 벌레는 없는지 아주 열심히 살펴보시기도 하고 잎도 딱딱 주셨습니다. 다른 화분도 보시면서 물도 주시고 전정가위로 가지나 줄기도 잘라 주셨습니다.

몇 일 동안 그러시더니 아버지께서는 담배연기가 식물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들으셨는지 잎의 가장자리가 말라들어 가는 것을 보시고는 그 잎을 몇 개 따서 수첩 사이에 놓으시더니 양복의 안주머니에 넣으셨다. 이튿날 담배연기로 인한 것으로 진단을 내리셨는지 베란다에는 재떨이가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퇴근길에 난화분 2개를 더 사오시더니

“값이 비싸지만 한달 담배값이면 충분해.” 하시면서 빙긋 웃으며 화분을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전에 TV에서 담배와 쥐, 사람의 허파 등 여러차례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다른 채널로 돌리려 하고 엄마는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투시곤 하셨습니다. 금연법, 성공사례 등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는 알아서 할거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가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란다의 화분을 통해서 직접 몸소 겪으시고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나와 동생한테도 직접 안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다 합니다.

이제 우리집 베란다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진 얼마 후부터는 담배 냄새 대신 꽃향이 가득 합니다. 멀지않아 나와 동생이 심은 채소와, 과꽃도 피게 되면 정말 예쁜 작은 정원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이자곤 합니다.

식사후에 아버지는 담배대신 작은 정원에서 엄마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국민이 다같이 이런 방법으로 금연을 하면 좋을텐데’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77

## 우리집의 작은 공원

김지영  
충동초등학교 5학년

